

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			
보도 일시	2022. 10. 26.(수) 조간 2022. 10. 25.(화) 11:00	배포 일시	2022. 10. 25.(화) 06:00
담당 부서	항만국 항만투자협력과	책임자	과 장 최국일 (044-200-5960)
		담당자	서기관 이민영 (044-200-5961)

해외 항만개발시장,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까?

- 2022년 해외항만개발 지원협의회 정기협의회, 26일(수) 개최 -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10월 26일(수)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'2022년 해외항만개발 지원협의회* 정기협의회'를 개최한다.

* 항만 분야의 해외 유망사업 발굴 및 우리 기업의 해외 항만개발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구성·운영(16년~) 중인 민·관 협의체(산업은행, 수출입은행, 부산항만공사, HMM, 현대건설, GS건설,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기업·단체로 구성)

최근 해외 항만개발 시장은 자금조달과 항만건설, 그리고 항만운영을 각각 다른 기업에서 담당하는 '단순 건설 시공사업'에서 벗어나 금융기관, 건설기업, 물류기업 등이 연합체를 구성해 자금조달부터 항만건설, 운영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'투자개발형사업'으로 변화해가는 추세이다.

이에 해양수산부는 '해외항만개발 지원협의회 정기협의회'를 개최하고, 변화하는 해외 항만개발시장 동향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. 이번 정기협의회에서는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, △항만분야 수출입은행 금융 활용방안 및 사례, △항만개발 민관합작투자사업(PPP)* 추진사례 등 그 동안의 사례발표가 진행된다. 특히, 우리 금융기관, 물류기업, 건설사 등이 연합체를 구성하여 해외 항만건설사업에 참여하는 한국형 해외항만개발 연합체(K-컨소시엄) 구성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.

* Public Private Partnership : 공적자금과 민간재원이 함께 투입되는 개발협력 사업

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"투자개발형사업으로 추진되는 해외 항만개발 시장의 변화를 고려 때, 해외 항만개발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자금조달, 항만건설 및 운영 등 각 단계별로 금융기관, 물류기업, 건설사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."라며, "해양수산부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 항만개발시장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."라고 말했다.

